

# 1위 싸움 = 체력 싸움 = 자기와의 싸움

## KIA 여름 대비 타순 구성...훈련도 간소화



지열해진 선두싸움,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다.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시즌 9차전이 열린 11일 챔피언스필드. 주말 시리즈의 마지막 대결을 앞둔 이날 훈련 시간의 풍경이 남달랐다.

부쩍 높아진 기온 속 연일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던 KIA는 훈련을 간소화했다. 체력적인 부담을 최소화해 경기 집중하겠다는 계산이었다.

넥센 덕아웃 분위기는 더 뜨거웠다. 1승 5패의 열세 속에 광주를 찾았던 넥센은 양현종과 땀이라는 큰 산을 넘어 2승을 선점한 데다 타자들의 타격 페이스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훈련의 양보다 질에 집중했다. 넥센 선수들은 경기 시작 두 시간도 남지 않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기태 감독은 경기 전 “최원준과 김주형을 제외하고는 수비 훈련을 빼고 간단하게 타격 훈련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김 감독은 안방을 도맡아 지키고 있는 포수 김민식을 모처럼 선발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한승택을 먼저 투입했다.

김 감독은 “김민식이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한승택이 게임 감각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식이 공·수에서 알짜배기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풀타임 경험이 없는 만큼

‘여름 나기’가 큰 숙제다. 한승택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한승택은 최근 많은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면서 체력은 아꼈지만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 더욱 뜨겁고 치열하게 돌아갈 여름 경기를 대비한 라인업인 셈이다.

센터라인의 또 다른 축 ‘키스톤 콤비’의 몸 관리도 순위 싸움의 변수다. 김선빈과 안치홍에게는 본격적인 복귀 시즌. 특히 여름철 체력이 떨어지면서 부상과 부진으로 고전을 해왔던 김선빈은 관심사수다.

체력부담 많은 자리에서 공·수를 이끌어야 했던 김선빈은 최근 허벅지 부위가 좋지 않아 8·9일 스타팅에서 제외됐었다. 다행히 두 경기 교체로 출전해 세 타석에서 삼진 두 개만 기록했던 김선빈은 선발로 복귀한 뒤 두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이상 무’를 알렸다. 반면 2루 자리를 굳게 지켜온 안치홍은 11일 연달아 실책을 기록하면서 우려를 낳았다.

또다른 선수들의 부지런한 활약이 필요하다.

타선에서는 이범호와 김주찬, 마운드에서는 한승택과 홍건희가 새 동력이 되어줘야 한다. 이범호와 김주찬은 각각 허벅지와 손목 부상에서 회복, 지난 8일 나란히 엔트리에 등록됐다. 김 감독이 ‘큰 역할’을 주문하며 2군에서 재정비 시간을 갖게 했던 한승택과 홍건희도 각각 10일과 11일 1군으로 복귀했다.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된 여름 시즌. 새로운 출발선에 선 복귀자들이 초반 부진을 만회하고, 여름 순위 싸움의 힘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



11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거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KIA 6번타자 서동욱이 5회말 1사 후 우월 솔로홈런을 터뜨린 뒤 베이스를 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KIA 고효준·김민식

### ‘이달의 감독상’ 선정

KIA 타이거즈 투수 고효준과 포수 김민식이 ‘이달의 감독상’에 선정됐다.

고효준과 김민식은 지난 10일 광주 넥센전에 앞서 구단 후원업체인 Kysco(키스코)가 시상하는 5월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다. 고효준은 5월 한 달간 10경기에 등판해 8이닝 동안 2.25의 평균자책점으로 5개의 탈삼진을 슈아내며 1승 1홀드를 거뒀다. 특히 어려운 상황마다 중간계투로 등판해 마운드 운영에 힘을 실어줬다.

김민식은 5월 26경기에 출전해 78타수 17안타 9타점 8득점을 기록했다. 특히 ‘안방마님’으로서 5월 전 경기에 출전해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준 김민식은 올 시즌 0.326의 득점권 타율을 기록하는 등 공수에서 알뜰란 같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날 시상은 의류 브랜드 Kysco 김원범 대표가 했고, 상금은 50만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

### 내일부터 월드컵경기장서

육상 꿈나무들의 ‘발랄한’ 레이스가 펼쳐진다.

‘제 3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경기대회’가 오는 13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막을 올린다.

대회는 ‘기본 중의 기본’인 육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재능있는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올해로 3회째 치러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 초·중학교 선수들이 60개 세부종목(초등부 24, 중등부 36)에 출전, 기량을 겨룬다. 체육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제 2의 김국영’과 ‘김덕현’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광주시체육회는 특히 올해 대회의 경우 ‘제 11회 광주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육상경기대회’를 겸해 치르는 만큼 기존 엘리트 선수 중심의 ‘보는 스포츠’가 아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스포츠’에 초점을 맞춰 ‘즐거는 스포츠 축제’로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학교를 대표해 출전하는 또래 선수들을 위한 학교간 응원전이 펼쳐지는가 하면, 대형 전광판으로 친구들이 달리는 모습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초등 3~6학년, 중 1~3학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회라는 점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개인 능력 테스트가 가능하고 체육 지도자들로서는 재능 있는 육상 꿈나무를 발굴할 수 있는 대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광주시스포츠과학센터의 운동처방 체험교실 등도 진행된다. /김지영기자 dok2000@



## ‘현역 최고령’ 최영필 은퇴

### KIA서 3연속 두자릿수 홀드

### 맹장수술로 시즌 준비 못해

### 아들과 한 무대 꿈 못이뤄

마운드 위 전설들의 아쉬운 퇴장이다. KIA 타이거즈의 ‘만행’ 최영필이 지난 9일 현역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1974년 5월 13일생인 최영필은 프로야구 최고령 선수로 그의 공 하나 하나가 기록이었다.

최영필은 1997년 현대 유니콘스 유니폼을 입고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한화 이글스(2001~2010년), SK 와이번스(2012~2013년)를 거쳐 지난 2014년부터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최고령 선수로 찬사와 존경을 받았지만 굴곡의 시간도 있었다.

FA 미아가 되어 현역 생활의 갈림길에 섰던 그는 2011년 일본 독립리그에서 재기를 노렸고, 2012년 SK를 통해 다시 마운드에 오를 수 있었다. 2013 시즌이 끝난 뒤에는 SK에서 방출되며 다시 한번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뛰어난 자기관리 능력으로 공을 놓지 않았던 최영필은 2014년 KIA로 와 야구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다.

갈매구와 베테랑의 노련함으로 ‘호랑이 군단’의 필승조로 자리한 최영필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홀드 기록을 작성하며 마운드의 든직한 축이 되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영필은 올 시즌에도 KBO리그 ‘최고령’ 타이틀과 함께 21번째 시즌을 준비했지만, 맹장 수술로 휘청거렸다. 지난겨울 맹장 수술을 받으며 스프링캠프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는 지난 5월 30일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시즌 첫 등판에 나섰다. 31일 NC 전에도 출격했던 최영필은 그러나 두 경기에서 1.1이닝 5피안타 1탈삼진 3실점을 기록한 뒤 은퇴를 선언했다.

최영필의 통산 성적은 549경기 50승 63패 16세이브 58홀드, 1042이닝을 던지며 4.73의 평균자책점과 708개의 탈삼진을 기록했다. 또 그는 KIA 선수로 최고령 세이브, 최고령 500경기 출전 기록 등을 남겼다.

경희대에 재학 중인 종현(2년)군과 ‘부자(父子) 선수’로 프로야구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아쉽게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최영필은 KIA 전력 분석원으로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700경기(-3)와 프로통산 400세이브(-19)의 기록을 앞둔 또 다른 전설 임창용도 잠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임창용은 지난 9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4-4로 맞선 9회 등판해 0.1이닝 3피안타 1탈삼진 3실점의 피정도로 패전투수가 됐다. 시즌 4패째를 기록한 임창용은 2군행을 자청하면서 그의 기록 행진은 잠시 멈추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헬멧 잡고 뛰는 버나디나 “문제 없어요”

### 덕아웃 T 특독

#### ▲문제없어요

헬멧을 잡고 뛰어도 공보다 먼저 3루에 도착하는 버나디나이다. 발 스피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버나디나는 요즘 무섭게 답장을 남기며 파워까지 보여주고 있다. 최근 버나디나의 세러모니 아닌 세러모니가 있다. 3루타를 치고 땀도 흘린 후 때리고 그라운드를 돌 때도 버나디나의 손은 헬멧으로 향한다. 헬멧을 잡고 뛰는 이유는 헤어 스타일 때문이다. 얼마 전 풍성했던 머리를 짧게 자른 뒤 헬멧이 커진 것이다. 버나디나는 이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 뛰는 것도 괜찮다”고 웃었다. 구단은 버나디나를 위해 딱 맞는 사이즈의 새 헬멧을 주문해준 상태다

#### ▲좋아졌다가 아니라 잘해야 한다

11일 덕아웃에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다. 지난 5월 28일 제구 난조로 엔트리에 말소됐던 홍건희가 1군에 복귀했다. 지난 시즌 중간은 물론 선발로도 좋은 활약을 해줬던 홍건희는 올 시즌 벌써 두 번째 2군을 다녀왔다. 김기태 감독은 앞서 한승택과 함께 홍건희를 말소하면서 “큰 역할을 해줘야 하는 선수들이다. 2군에서 준비 잘하고 좋은 모습으로 와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이날 덕아웃에서 “2군에서 많이 좋아졌나?”는 질문을 받은 홍건희는 “좋아졌다가 아니라 잘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와 관중이 많이 왔구나  
마운드가 익숙해지고 있는 ‘루키’ 박진태다. 팻딘이 3.2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던 지난 10일 넥센전, 4-8 패배로 끝난 경기의 위안은 대졸 신인 박진태의 호투였다. 데뷔 후 세 번째 등판이었던

이날 박진태는 3.1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했다. 박진태의 데뷔전은 지난 4월 11일 두산 원정, 선발 홍건희가 2.1이닝 5실점으로 조기 강판된 뒤 김광수에 이어 세 번째 투수로 등판했던 박진태는 불발은 두산 타선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2.1이닝 5실점으로 흑독한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 6일 다시 1군에 등극한 박진태는 8일 한화전에 이어 10일 넥센 경기에 등판해 경험을 쌓았다. 박진태는 “첫 경기 때는 포수 미트밖에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관중석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와 관중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웃음). 경기에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잘 풀려서 생각보다 길게 던졌다. 팀이 역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주눅 들지 않고 내 공을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올림픽 종목 희비

### 진종오 3연패 50m 권총

### ‘2020 도쿄’서 폐지되고

### 골프, 2024년도 살아남고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오(38)가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남자 50m 권총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서는 열리지 않게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9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개최할 종목 목록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열린 28개 정식 종목 외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추천한 5개 종목(야구/소프트볼·가라데·스케이팅보딩·스포츠 클라이밍·서핑)이 추가됐다.

또 사격에서는 50m 권총을 비롯해 50m 소총 복사, 더블트랩 등 남자 종목 3개를 폐지했다.

한편, 골프는 2024년 하계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열린다.

골프닷컴 등 미국 골프 전문 매체들은 11일(한국시간) “9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열린 28개 종목을 2024년 대회에도 정식 종목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제도입된 골프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이어 2024년 대회에서도 올림픽 무대에 남게 됐다. /연합뉴스